

유행성 출혈열은 어떤 병인가

전 중 회

怪病이라니 불리우니 이 병의 正體는 무엇일까

오늘날 의학계에서 출혈열이라고 불리우는 병증은 혈관계의 기능장애와 형태학적변화가 특징인 일종의 비루스(Virus)성 급성전염병군을 통털어서 말한다. 즉 이 혈관장애로 말미암아 피부나 점막에 출혈반이 나타나고, 토혈, 각혈, 하혈, 비출혈, 자궁출혈 따위가 오게 되고 혈장(血漿)이 혈관밖으로 흘러나오며 신장기능도 망가져서(腎不全), 단백뇨, 혈뇨가 나타나고 저합압성쇼크들이 일어나게 된다.

유행성출혈열은 세계각지에 발생하며 그 병원체, 매개충, 전파방법들이 각기 다른데,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출혈열은 극동형이라고 하여, 출혈경향

이나 쇼크는 다른 출혈열에서나 마찬가지로 있으며 이에 겹쳐서 신장기능부전(不全)이 뚜렷하며, 아직도 그 병원체가 구명되지 못하였고 전파방법도 파악되지 못한 점에서 학계에서 연구대상질환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극동형출혈열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출혈열은, 늦봄과 늦가을의 두차례에 걸쳐, 유행적발생이 있고, 한반도를 두동강으로 나는 휴전선에 따라 수십만의 장병이 남북에서 대치되어 있는 만큼,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 보다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병증이 다른 어느 출혈열보다도 중독하여 치명률(致命率)이 높은 점에서, 요새와서는 한국형출혈열이라는 별명을 학계에서도 호칭할정도이다.

한국형출혈열은 6.25사변과 관계를

가지고 1951년 봄부터 전선(戰線)의 교착에 따라,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鐵의 三角地) 지역에서 특히 많은 환자가 유엔군장병에서 발생하여, 1952년봄까지 1년동안에 약 2천명이 걸리고 그중 3,4백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65년경까지는 이 괴질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 한정되어, 일선 장병과, 휴전선 가까이 귀농(歸農)지역에서 잉농에 종사하는 농부들에게서 주로 발생하여, 일종의 군진병(軍陣病)으로 여겨 일부 관심있는 의학과 군의진의 연구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차로 발생지역이 남하하면서 확대하는 경향이 해를 거듭하면서 뚜렷하여졌는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이제는 호남지역까지, 남한전체가(일부 도서서남을 제외하고는) 병독오염지구(本病발생지역)로 인정받게 되어 일리 사회전문제로 다루게끔 되었다.



본병의 병원체는 아직 분리되지 못하여 불명이며, 자연계에서는 들쥐가

이병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일시 들쥐에 기생하고 있는 좀진드기가 흡혈시 매개하리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요새같은 전과 양식으로 미루어보아, 들쥐의 배설물에 포함 배출되어, 사람에게 직접 감염을 일으키리라는 설이 더 유력한듯하다.

이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복통, 구역, 구토가 일어나고, 3~5일후에 해열과 함께 출혈성경향, 쇼크, 신부전현상이 일어나 소변이 나오지않아 노에 배출될 독소가 온몸에 퍼지며(尿毒症), 폐수종(肺水腫), 중추신경계침범, 2차감염파위의 중독한 증세로, 그 치명율이 15~20%를 상회하였던 것이다. 본병의 병태생리(病態生理)는, 그간 많은 학자들의 진지한 연구로서 규명된바 많아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대증적이지만)에 의하여 치료성적이 증와져서 이제는 그 치명율이 8~10%로 떨어지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가톨릭의대 내과교수>